

SVB(실리콘밸리은행) 사태 동향 및 해외시각(3.13)

황유선 책임연구원 외 (3705-6174)

- [금융시장 반응] 전주말 미국 금융당국의 빠른 개입으로 은행시스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13일 아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
 - [주식] 코스피는 장초반 -1.1%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+0.7%로 반등. 아시아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(日 -1.1%, 대만 +0.2%, 홍콩 +1.9%, 15:30 기준)
 - 외국인 주식자금은 달러약세 영향 등으로 유입(+1,537억원)
 - [채권] 미국 장기금리(10년)는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亞 시장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(3.69%), 단기금리(2년)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후퇴로 하락세 지속(4.42%, -16bp)
 - 연방기금선물시장에서 3월 25bp 금리인상 확률이 10일 133%에서 13일 현재 93%로 하락. Goldman Sachs는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을 예상
 - [외환] 미 달러화는 연준 통화긴축 감속 기대로 3.10일 큰 폭 약세를 보인 데 이어 금일 亞 시장에서 추가 약세(-0.6%). 엔화는 미-일 금리차 축소로 추가 강세(+0.5%)
 - 원화는 신용·유동성 우려보다 통화긴축 감속 기대에 반응하며 장중 1,300원 일시 하회

		3.13일(15:30)	3.10일	전일대비	최근 1주일	연간(YTD)
미국	S&P500		3862	-1.4%	-4.5%	0.6%
	주요은행 주가(KBW)		92.22	-3.9%	-15.7%	-8.6%
	지역은행 주가(DJSRB)		356.41	-4.2%	-16.6%	-12.8%
	벤처기업 가치평가 지수*		10367	-2.5%	-6.5%	2.1%
	국채금리 10년(%)	3.69	3.70	-1bp	-27bp	-19bp
	국채금리 2년(%)	4.42	4.59	-16bp	-46bp	0bp
	은행 CDS(투자등급)	91	90	1bp	7bp	-10bp
	달러화 지수(DXY)	103.92	104.58	-0.6%	-0.4%	0.4%
아시아	달러/엔**	134.40	135.03	0.5%	1.1%	-2.4%
	달러/위안**	6.8887	6.9173	0.4%	0.6%	0.1%
	니케이225	27833	28144	-1.1%	-1.4%	6.7%
	상해종합지수	3264	3230	1.1%	-1.7%	5.7%
한국	달러/원**	1301.8	1324.2	1.7%	-0.4%	-2.9%
	코스피	2411	2395	0.7%	-2.1%	7.8%
	외국인 주식순매수*** (억원)	1,537	-4,863		-12,236	71,568

자료: Bloomberg, Refinitiv, KRX * Refinitiv Venture Capital Index ** 해당 통화의 대미달러 강/약세폭 *** 코스닥 포함 체결 기준

□ [국별 정책대응] 미국, SVB 예금자 전액 보장 및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발표 / 영국, HSBC의 SVB 지사 인수, 기업 유동성 지원 모색 / 캐나다, SVB 자산 임시관리 결정

- **미국:** 연준, 재무부, FDIC는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3.13일부터 SVB의 모든 예금자들이 전액을 찾을 수 있도록 FDIC가 보장하는 방안을 옐런 재무부 장관이 승인했으며 시그니처 은행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발표
 - 주식·채권 투자자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. 납세자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음
 - 연준은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로운 “은행 기간자금 지원 프로그램”(BTFP, Bank Term Funding Program) 발표
 - 은행, 저축/신용조합, 해외은행지점 등 합법적 예금기관들에게 최대 1년 만기 대출을 국공채, 모기지채 및 기타우량 자산들을 담보로 헤어컷 없이(valued at par) 제공. 해당 기관들이 보유자산을 헐값에 단기간내 강제 매각하는 위험을 방지
 - 재무부, 외환안정기금(Exchange Stabilization Fund)을 통해 지역연은들에 \$250억 신용보강(credit protection, backstop)을 제공. 실제 자금 인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
 - 대출 담보 자산은 3.12일 현재 차입자 소유 자산으로 공개시장조작에 활용되는 자산이 모두 포함. 대출 당일 1년물 OIS+10bp로 고정금리 적용. 향후 페널티 없이 조기상환 가능
 - 기존 재할인창구(Discount window)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BTFP에 적용되는 유가증권들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, BTFP와 동일하게 헤어컷 없이 지원
- **영국:** 중앙은행(BOE)이 3.10일 SVB 영국 지사의 은행파산절차 신청을 발표했으며, HSBC는 3.13일 영국지사 인수. 재무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추진
 - 3/10일부터 SVB의 예금 입출금을 전면 중단하고 FSCS(금융서비스 보상기구)를 통해 예금자보호 한도 £8.5만, 공동계좌(joint accounts)의 경우 £17만까지 보장
 - 재무부는 HSBC가 SVB 영국 지사를 인수했다고 발표. 예금은 납세자 지원 없이 보호될 것이며 SVB 예금자는 정상적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에 접근 가능
 - 재무부, 여타 기술기업들에 대한 현금 유동성 지원을 추진
- **캐나다:** 캐나다 금융감독원(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, OSFI)은 3.12일 SVB 캐나다 지사의 자산을 임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영구 관리권 확보를 모색하는 한편 법무부에 해당 지사 청산명령(Winding-up Order)을 신청
- **이스라엘:** 이스라엘 재무부 주도로 3/11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·분석 중이며 필요시 대응 예정

- [해외시각] 주요 IB들은 SVB 사태를 특수한 케이스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. 금융당국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위험 전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에 무게
 - 은행: 주요 IB들은 금번 실리콘밸리은행(SVB) 사태가 시스템적 리스크라기 보다는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로 해석
 - 금번 사태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,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하지 않은 은행의 특수한 상황으로 평가. 대형 은행들은 풍부한 자본, 강한 규제, 높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전염 또는 광범위한 투매 가능성은 제한적(JPM)
 - 금번 이슈는 금리 인상 및 예금 감소 등 지역 은행들이 직면한 구조적 이슈를 보여 주지만, 여타 지역은행도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을 전망
 - 실리콘밸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증권 보유가 많았던 특수한(unique) 케이스(예대율 43% vs 은행권평균 67%, 수익자산 중 증권 비율 58% vs 은행권평균 24%).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과 자본상태는 견조하며, 최근의 공포는 펀더멘털을 미반영(Goldman Sachs)
 - 금융당국 조치: 금번 조치가 예금자 신뢰를 회복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위험을 제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
 - 재무부, 연준, FDIC의 합동 조치는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전염 우려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(Goldman Sachs, Citi)
 - '08년과 같은 비보장 계좌에 대한 FDIC의 예금자 보호 조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, 현 여건에서는 단시일 내 해당 조치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(GS)
 - 연준 금리인상: 3월 금리인상 확률 및 강도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축소
 - Goldman Sachs는 본래 3.22일 FOMC에서 25bp 인상을 예상했으나, 금번 은행권 스트레스로 인해 3월 동결로 전망 변경
 - Nomura는 SVB 사태를 감안할 때 3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보다는 25bp 인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
 - JP Morgan은 시장에서 제시되어온 3월 50bp 인상 전망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며 25bp 인상 예상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74 혹은 yshwa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